

요양보호사의 노인 돌봄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혜승¹, 이소영^{2*}

¹구미대학교 간호학과, ²경운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the Caregiver Attitude toward Care of the Elder

Hye Seung Kang¹, So Young Lee^{2*}

¹Department of Nursing, Gumi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목적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이 노인 돌봄 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전략을 제공하고자 시행된 조사연구로 D시, K도 요양보호사 14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결과 분석 프로그램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노인 돌봄 태도는 3.56 ± 0.90 점, 감정노동은 3.23 ± 0.74 점, 회복 탄력성은 3.94 ± 0.40 점이었다. 노인 돌봄 태도는 회복 탄력성($r = .294, p < .005$)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노인 돌봄 태도의 설명력은 15.6%로 회복 탄력성($\beta = .360, p = .002$), 근무 형태($\beta = -.282, p = .001$)가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요양보호사들에 관한 근무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자신의 직무인 노인 돌봄 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emotional work, and attitudes toward caregivers caring for the elderl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01, 2018 to December 31, 201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geriatric subjects were $3.56 \pm .90$ points out of 5, $3.23 \pm .74$ points out of 5 for emotional work, and $3.94 \pm .40$ points out of 5 for resilience. Th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geriatric patients were related to resilience ($r = .294, p < .001$). Resilience ($\beta = .360, p = .002$) and work type ($\beta = -.282, p = .001$)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F = 7.5355, p < .001$).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15.6%.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terventions may be necessary to improve the attitudes of the caregiver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Keywords : Attitudes, Geriatric, Resilience, Emotional Work, Caregive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 중 13.8% 이르며, 가족의 부모부양이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관계 변화에 따른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1,2]. 이러한 변화 속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 요양제도가 있

며, 본 제도에 주요한 인력으로 요양보호사를 들 수 있다 [3,4].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으로 노인의 신체·가사 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의 효과성을 이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노인 돌봄 태도에 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4-6]. 요양보호사가 가지는 노인 돌봄 태도에 따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Lee(Kyungwoon Univ.)
email: 108959@naver.com

Received June 10, 2019

Accepted September 6, 2019

Revised July 30, 2019

Published September 30, 2019

른 인식이나 마음가짐은 노인 돌봄 수행 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으로 나타나 노인 돌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행동 수행 의지에 영향을 주므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7-9].

노인 돌봄 서비스는 대인 서비스 행위로 대상자를 이해하고, 대인관계 시 활용되는 감정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감정노동과 관련이 된다[9]. 요양보호사의 감정적 조화는 조직 환경 속에서 대상자와의 관계 증진으로 직무 성과를 올리는 긍정적 역할 도모를 할 수 있으나 감정적 부조화의 경우 자기 소외, 소진, 서비스 질 저하, 이직 의도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9-10]. 최근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할 방안으로 회복 탄력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회복 탄력성은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는 사회·심리적인 특성을 의미한다[11,12]. 감정노동의 효율적 관리법으로 회복 탄력성은 많은 도움이 되며[13,14], 회복 탄력성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기 전 상태로 회복하는 힘과 능력의 핵심으로 대인 서비스를 경험하는 감정노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관리방안이라 볼 수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이 노인 돌봄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 노인 돌봄 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 노인 돌봄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 노인 돌봄 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노인 돌봄 태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이 노인 돌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D시와 K도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7곳에서 노인 돌봄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 수의 근거는 G*Power 3.1.9.2를 사용하였고, 통계 방법은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 .95, 효과크기는 중간크기로 설정하여 138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으나, 탈락률 20%와 부적절한 설문지를 고려하여 총 200부를 배부하여 수거된 설문지는 170부였으며,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14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상자 보호를 위해 K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No KW-2018-02) 후 시행하였다. 대상자를 위해, 자료 수집 전 서면화 된 연구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시간, 설문지의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중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고, 이후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가 기입식으로 시행하였으며, 작성된 설문내용은 코드화하여 연구자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였으며, 코드화한 자료와 설문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 종료 후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Grandey[12]의 감정노동의 빈도, 감정노동의 주의 정도, 감정노동의 다양성, 감정노동에 따른 감정적 부조화로 구성된 총 8개 문항,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감정노동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73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2$ 이었다.

2.3.2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은 Connor과 Davidson[18]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한국형 회복 탄력성 도구를 본 연구 대상자에게 맞게 Hwang[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강인성, 지속성/내구력, 낙관주의, 지지, 영성의 총 25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9$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9$ 이었다.

2.3.3 노인 돌봄 태도

노인 돌봄 태도는 Sanders et al.[15]과 Maxwell et al.[16]의 도구를 Joung[1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7개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로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64$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3$ 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 노인 돌봄 태도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 노인 돌봄 태도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과 성별은 여자 87.1%, 평균 연령 59.7 ± 6.36 세, 종교는 '있다'가 84.3%, 학력은 고졸 49.3%, 총 경력은 평균 4.13 ± 2.19 년, 현 기관 평균경력은 19.1 ± 0.79 개월이며 이직경험은 '있다'와 '1번'이 각 40.7%, 41.4%로 평균 1.1회 이직경험이 있었고, 근무는 시간제가 52.1%이고, 월급은 평균 84.4 ± 35.4 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감정노동($F=12.167$, $p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 of Subjects (N=142)

Variables	Categories	n(%)	Emotional work		Resilience		Attitudes toward caring the geriatric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Female	122(87.1)	3.25±0.74	.952	3.58± 0.91	.953	3.92± 0.37	-1.016
	Male	18(12.9)	3.07± 0.79	(.343)	3.36± 0.90	(.342)	4.03± 0.54	(.312)
Age	≥ 49	11(7.9)	3.28± 0.82	1.074 (.372)	3.60± 1.23	1.208 (.310)	3.89± 0.11	.311 (.870)
	50-55	25(17.9)	3.42± 0.80		3.89± 0.82		3.97± 0.32	
	56-60	53(37.9)	3.24± 0.80		3.52± 0.87		3.97± 0.43	
	61-65	30(21.4)	3.20± 0.65		3.42± 0.85		3.88± 0.39	
	≤ 66	21(15.0)	2.97± 0.57		3.41± 0.90		3.92± 0.43	
	M±SD	59.7± 6.36						
Religion	Yes	118(84.3)	3.22± 0.72	-.358	3.56± 0.90	.197	3.94± 0.40	.213
	No	22(15.7)	3.28± 0.87	(.721)	3.52± 0.97	(.844)	4.92± 0.39	(.832)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11(7.9)	2.90± 0.79	.823 (.483)	3.32± 0.10	.526 (.665)	4.04± 0.61	.389 (.761)
	Middle School	49(35.0)	3.23± 0.64		3.54± 0.81		3.94± 0.36	
	High School	65(46.4)	3.28± 0.78		3.64± 0.92		3.93± 0.37	
Health State	≤ College	15(10.7)	3.22± 0.84	1.482 (.222)	3.42± 0.10	.761 (.518)	3.87± 0.46	.337 (.799)
	Very Good	11(7.9)	3.67± 0.44		3.95± 0.43		3.99± 0.33	
	Good	48(34.3)	3.17± 0.71		3.50± 0.86		3.90± 0.36	
	Moderate	69(49.3)	3.18± 0.75		3.52± 0.99		3.96± 0.42	
Total Career (year)	Bad	12(8.6)	3.27± 0.95	.349 (.706)	3.58± 0.88	.158 (.854)	3.89± 0.47	1.171 (.313)
	≥ 3	56(39.3)	3.29± 0.80		3.60± 0.99		4.00± 0.34	
	4-6	50(35.7)	3.20± 0.70		3.55± 0.75		4.01± 0.41	
	≤ 7	36(25.0)	3.16± 0.72		3.49± 0.98		3.89± 0.07	
Now Career (month)	M±SD	4.13± 2.19						
	≥ 30	100(71.4)	3.30± 0.71	1.804 (.168)	3.62± 0.88	.765 (.468)	3.95± 0.40	1.004 (.369)
	31-70	30(21.4)	3.03± 0.86		3.40± 0.97		3.96± 0.35	
	≥ 71	10(7.1)	3.05± 0.65		3.42± 1.00		3.76± 0.50	
M±SD	19.1± 0.79							
Turnover Experience	None	57(40.7)	3.21± 0.67	1.093 (.354)	3.45± 0.74	1.197 (.313)	3.91± .39	.333 (.802)
	1	58(41.4)	3.15± 0.90		3.56± 1.05		3.94± .37	
	2	14(10.0)	3.54± 0.33		3.97± 0.86		4.03± .60	
	≥ 3	11(7.9)	3.33± 0.43		3.54± 0.85		3.95± .21	
	M±SD	1.1± 0.5						
Work Type	Permanenta	50(35.7)	3.22± 0.68	12.167 (p<.001) a<c	3.54± 0.78	8.462 (p<.001)	4.08± 0.38	5.806 (.004)
	Contractb	17(12.1)	2.49± 1.20		2.75± 1.35		3.96± 0.40	
	Part timec	73(52.1)	3.41± 0.51		3.68± 0.77		3.83± 0.38	
Salary (10,000 won)	≥ 59	42(30.0)	3.19± 0.74	.623 (.538)	3.53± 0.85	.485 (.617)	4.01± 0.47	1.523 (.222)
	60-99	48(34.3)	3.32± 0.55		3.66± 0.62		3.94± 0.40	
	≥ 100	50(35.7)	3.17± 0.89		2.48± 1.16		3.87± 0.32	
	M±SD	84.4±35.4						

.001), 회복 탄력성($F=8.462, p<.001$), 노인 돌봄 태도 ($F=5.806, p=.004$) 모두 근무형태와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검정결과 감정노동의 경우 시간제 근무가 정규직보다 감정노동이 높게 나타났고, 노인 돌봄 태도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시 회복 탄력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3.2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 노인 돌봄 태도 정도

연구대상자의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23 ± 0.74 점, 회복 탄력성 5점 만점에 3.94 ± 0.40 점, 노인 돌봄 태도도 5점 만점에 평균 3.56 ± 0.90 점으로 나왔다<Table 2>.

Table 2. Degree of subjects (N=142)

Variables	M±SD
Emotional work	3.23± 0.74
Resilience	3.94± 0.40
Attitudes toward caring the geriatric	3.56± 0.90

3.3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 노인 돌봄 태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노인 돌봄 태도는 회복 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294, p<.001$). 회복 탄력성은 감정노동($r=.717, p<.0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subjects (N=142)

	E	R	A
E	1		
R	.717**	1	
A	.140 (.098)	.294**	1

E: Emotional work R: Resilience A: Attitudes toward caring the geriatric

3.4 대상자의 노인 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노인 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을 보이는 회복 탄력성과 일반적 특성 중 근무형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수정된 설명력은 15.6%이었고, 노인 돌봄 태도는 회복 탄력성($\beta=.360, p=.002$),

과 근무형태($\beta=-.282, 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전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시행하였고,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47-.97로 1.0이하, 분산팽창지수(VIF)는 1.030-2.118로 10을 넘지 않았다. 오차의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은 1.74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caring the geriatric subjects

Variables	B	SE	β	t	p
Resilience	.159	.050	.360	3.208	.002
Work Type	-.122	.034	-.282	-3.559	.001

$R^2=17.4, \text{Adjusted } R^2=15.6, F=7.535, p<.001$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노인 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23 ± 0.74 점으로 같은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2.89 ± 0.71 점, 3.06 ± 0.39 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낮았다[9,10].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평균 연령 59.7 ± 6.36 세, 근무형태는 파트타임(52.1%)이 높게 나타나 연령과 경제적 불안감이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와는 다소 연령이 차이를 있으나 45세 이상 중년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커지고 있으나, 안정적이지 못한 경제적인 요소가 감정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어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와 본 연구에서 연령과 불안정한 경제적인 요소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0,23].

노인 돌봄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6 ± 0.90 점 (66.92 ± 0.62)이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9.1 ± 6.12 점보다 낮게 나타났다[17]. 사후검정 결과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순이었으며, 이는 돌봄 대상자와의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육체적인 노동 시간이 길어진 결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육체적으로 고된 일로 2년 정도의 한계를 보았고,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59.7세로 타 연구대상자보다 높아 육체적으로 약해진 상

태 때문인 걸로 보이지만 이는 반복연구로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25].

회복 탄력성은 5점 만점에 3.94± 0.40점이었으며, 같은 대상자로 수행된 연구에서 3.61± 0.50점,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 3.32± 0.72점으로 나타났다. 회복 탄력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험에 의한 삶의 지혜, 자아 성취감, 가족의 지지체계 등이 굳건하게 되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26].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이고, 간호사의 경우 평균 30세인 것으로 나타나 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2008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 돌봄의 긍정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0]. 요양보호사는 주로 평균 60세 여성으로 생애주기별 특성과 심리적인 상태변화에 따른 회복 탄력성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노인 돌봄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연령과 불안정한 고용에 따라 이들의 노인 돌봄 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21-22].

이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노인 돌봄 태도는 경제적인 안정과 주 근무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해 보이며, 본 연구는 평균 60대 여성으로 이루어진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회복 탄력성이 노인 돌봄 태도에 미치는 관계를 본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노인 돌봄 태도의 정서적인 요소만을 반영하여, 신체적인 특성의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추후 반복 연구를 진행하여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Survey of the elderly on 2017", November, 2017.
- [2] Statistics Korea, "Social Trends in Korea in 2018", December, 2018.
- [3] J.Y.Kim,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Aged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Master's thesis, Myong Ji University, Seoul, Korea, 2009.
- [4] C.J. Lee,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Old Adult General Hospital and Geriatric Hospital*,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Gangwon-do, 2003.
- [5] Ministry of Health & Welfare, "Guidelines for training Caregiver in 2018", 2018.
- [6] Ministry of Health & Welfare, "Standards teaching materials for Caregiver", 2014.
- [7] Y.O.Kim,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Nurse'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 Care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9.
- [8] H.S. Oh, H.S. Jeong, "A Study on Nursing Students' Elderly Patient Simulation Experience", *J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pp. 3358-3367, 2013.
DOI:<https://doi.org/10.5762/KAIS.2013.14.7.3358>
- [9] J.S. Kim, "A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the Care Workers Emotional Labor on Turnover Intention and Mediating Effects of Emotive Dissonance and Job Satisfaction", *J of Welfare for the Age*, Vol. 61, pp. 163-188, 2013.
- [10] H.W.Kim, O.I. Park, H. Moon, "The Influence of Working Environment and Emotional Labor of Care Givers on Their Burnout in Medical & Welfare Center", *J of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munity Life Sciences*, Korea, pp. 119, 2012.10.
- [11] T. Huynh, M. Alderson, M. Thompson, "Emotional labor underlying caring: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 of Advanced Nursing*, Vol. 64, No. 2, pp. 195-208, 2008.
- [12] A. Grandey, "Emotional regulation in the workplace: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J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 5, No. 1, pp. 95-110, 2000.
DOI:<https://doi.org/10.1037/1076-8998.5.95>
- [13] D.N. Oh, "A Study on the Career's Degree of turnover, exhaustion, and resilience", *J of Research Onstitute for Basic Sciences*, Vol. 23, No. 1, pp. 57-69, 2015.
- [14] Y.E. Kwon, "A Study on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linical Nurses", *J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2, pp. 339-346, 2018.
DOI:<https://doi.org/10.5762/KAIS.2018.19.2.339>
- [15] G.F. Sanders, J.E. Montgomery, J.F. Pittman,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of Applied Gerontology*, Vol. 3, No. 1, pp. 59-70, 1984.
- [16] A.J. Maxwell, N. Sullivan, "Attitudes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among family practice residents" *J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 28, No. 8, pp. 341-345, 1980.
DOI:<https://doi.org/10.1111/j.1532-5415.1980.tb01095.x>
- [17] H.Y. Joung, H.J. Hyun, "The Effects of Senior Simulation Programs on Elderly Care Facilities Employees' Attitudes for Elderly Care, Understanding of the Aged,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 23, No. 3, pp. 222-230, 2012.
- [18] K.M. Connor, J.R.T.David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 18, No.

2, pp. 76-82, 2003.

DOI:<https://doi.org/10.1002/da.10113>

- [19] Y.G. Hwang,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occupational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are workers, Master's thesi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015.
- [20]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2017.
- [21] K.M. Yang, "The Effect of Depression, Life Stress and Resilience on Quality of Life in Middle Aged Women",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 22, No. 2, pp. 300-309, 2015.
- [22] W.J. Yun,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elf-concept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en participating in life sports", J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Vol. 31, No. 4, pp. 1-19, 2017.
DOI:<https://doi.org/10.16915/ikapesgw.2017.12.31.4.1>
- [23] Y.H. Lee, Mental Health Theory. Paju, Hakyunsa. 2005.
- [24] J.F.Schnelle, S.F.Simmons, C.Harrington, M. Cadogan, E. Garcia, M. Bates, B. Jensen, "Relationship of nursing home staffing to quality of care", Health Serv Res. Vol. 39, No. 2, pp. 225-250, 2004.
DOI:<https://doi.org/10.1111/j.1475-6773.2004.00225.x>
- [25] S.Y. Hong, "The Study about The Meaning of the formal elderly care labour by employee in long-term care setting", J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1, pp. 165-190, 2011.
- [26] J.S. Kang, J.Y. Lim, "Effects of Clinical Nurses' Resilience on Job Stress and Burnout", J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1, pp. 263-273, 2015.
DOI:<https://doi.org/10.5392/JKCA.2015.15.11.263>

이 소 영(So-Young Lee)

[정회원]



- 2012년 2월 : 계명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의료경영 석사)
- 2017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6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요양병원, 간호사, 도덕, 재직의도

강 혜 승(Hye-seung Kang)

[정회원]



- 2010년 2월 : 대구카톨릭대학교 임상보건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대구카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 노인간호